

내일부터 신입·인턴 공채 1100명 리쿠르트

# 롯데의 채용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동계 인턴, 10월 30일부터 시작  
엘탭·면접 탈락면 피드백 제공



롯데 2018 하반기 공개채용 포스터 /롯데지주

롯데그룹은 201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및 하계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9월 5일부터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식품·관광·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제조, 금융 분야 등 45개사로,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800명과 동계 인턴 300명 등 1100명 규모다.

이번 신입 공채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동계 인턴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신입 공채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엘탭(L-TAB; 조직·직무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중순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전 계열사의 서류전형 심사에 AI시스템을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롯데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백화점, 마트, 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의 서류전형 심사에 AI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AI 시스템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크게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인재인지를 판별하는 '필요인재 부합도 분석'과 표절여부를 통해 지원자

의 진실성 및 성실성을 판단하는 '표절 분석'을 통해 평가했으며, 롯데는 이 결과를 서류 전형에 참고해 합격자를 선발했다.

서류 전형 이후 진행되는 롯데 고유의 조직·직무적합도 검사인 엘탭 전형은 10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전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에 모든 면접을 진행하는 '원스탑 면접' 기조를 유지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엘탭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는 전형결과와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에서도 장애인 채용 확대와 함께 학력 차별금지 등 다양성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 원칙을 이어나간다. 공개채용과는 별개로 9월 5일부터 롯데 정보통신, 롯데건설, 롯데카드 등 19개 계열사에서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롯데는 구직자의 과도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만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자의 직무수행 능력만을 평가해 선발하는 '롯데 SPEC테클 채용'을 10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 고유 블라인드 채용 전형인 '롯데 SPEC테클' 채용은 서류 접수 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획서나 제안서만을 제출받으며, 회사별,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주제 관련 미션수행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식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롯데는 이번 하반기 채용 및 동계 인턴과 관련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정보 제공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롯데 계열사의 채용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잡카페(Job-Cafe)를 두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9월 1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되는 잡카페에는 모든 계열사가 참여한다. 두번째 잡카페는 9월 14일 서울 3곳, 대전/부산 각 1곳에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잡카페의 채용상담을 사전예약으로 진행한다. 사전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 1 열린채용
- 2 시심사
- 3 스펙 방지
- 4 잡 카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채용상담회에 계열사 인사담당자 및 모집 직무담당자들이 참여해 회사와 직무에 대한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채용정보 카페와 연계한 '넷글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인사담당자는 "롯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며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열정과 역량을 가진 지원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그룹 2018 하반기 공채 직무소개영상 JOB TV에 출연한 CJ 신입사원들. /CJ그룹

## CJ,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채용 직무중심 '리스펙트 전형' 확대

CJ그룹이 CJ제일제당, CJ 대한통운, CJENM을 비롯한 8개 주요 계열사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입사 지원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면 가능하며, 서류 접수는 9월 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오는 10월 중순 테스트 전형을 치를 예정이며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실무진과 임원진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공채부터는 AI 서류전형 평가툴을 도입해 심사관들이 지원자들의 서류를 보다 꼼꼼히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입사 준비에 대한 지원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CJ종합인적성 검사에서 인문소양영역을 제외하여 진행한다.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를 중요한 선별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는 CJ그룹은 이번에도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난 해 하반기 첫 도입된 '리스펙트 전형'을 CJ제일제당 식품영업, CJEN

M E&M부문 컨서트제작,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 등의 다양한 직무로 확대한다. 리스펙트 전형은 출신학교 및 학점, 영어 점수 등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일절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말한다.

또한 실질적인 직무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직무 차별화 면접'이 더욱 다양해진다. '직무 차별화 면접'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J그룹의 독자적인 면접 방식으로 CJENM E&M부문 PD직군의 오디오 면접이 대표적이며 CJ는 CJ제일제당 R&D전문성 면접, CJ푸드빌 상품개발 직군의 메뉴품질회 등 직무 특성에 맞는 면접 방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자 중심의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업계 최초로 24시간 입사 관련 문의에 답변해주는 AI챗봇 서비스 'CJ지원자도우미'를 새롭게 선보인다. 지원자들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있는 'CJ 지원자도우미' 아이콘을 클릭해 질문해 실시간 답변 받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 고용한파 속 단비... IT·게임 공채문 열었다

스펙보다 직무역량 우선 '눈길'  
구직자 위한 설명회 등도 다양

지난달 말 KT를 시작으로 주요 정보기술(IT)과 게임 업체들이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일자리 부진으로 '고용한파'를 맞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사람'이 자신인 IT 기업들에게도 인재를 영입할 기회다. 달라진 채용 전형도 눈에 띈다. 스펙 보다는 직무역량이 우선이다.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해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3일 IT 업계에 따르면,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하반기 이동통신업계의 신입·경력 공개 채용 절차가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 KT는 지난달 28일부터 KT를 비롯해 15개 그룹사가 함께 참여해 총 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KT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 300명을 채용한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연구·개발(R&D)과 융합 기술 분야 채용을 확대했다. 미래 세대 대비를 위한 인재를 뽑기 위해 스펙을 배제한 열린 채용방식인 'KT스타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도 이날부터 SK그룹 계열사와 하반기 공채 과정을 시작한다. 올해



넥슨·넷마블 2018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포스터. /각사

에는 직무 담당자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받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유튜브에서 열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인적성 검사, 실무면접, 인턴십 과정으로 이뤄진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게임 업계도 대규모 게임사가 중점이 돼 하반기 공채의 달을 올렸다. 이날 넥슨 컴퍼니는 21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에는 넥슨, 네오플, 넥슨지티, 넥슨레드, 넷게임즈, 엔진 스튜디오 등 6개 법인이 참여한다.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넥슨 관교사옥에서 열리는 '커리어 클럽'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커리어 클럽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군별 포트폴리오 점검, 커리어 강연,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넷마블도 넷마블의 개발사인 ▲넷마블네오(주요작: 리니지2 레볼루

션) ▲넷마블넥서스(세븐나이즈) ▲넷마블엔파크(마구마구) ▲넷마블엔투(모두의 마블) ▲이츠게임즈(신자) ▲포플렛(아이언쓰론) 등을 포함해 총 7개사 하반기 신입 공채를 시작한다. 게임 개발뿐 아니라 AI 개발과 연구 데이터분석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직군에서도 채용의 문을 연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7일부터 신입 개발자를 공개채용하고 있다. 학력, 전공, 나이 등의 스펙보다 지원자의 개발역량을 우선시하는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된다.

엔씨소프트 또한 이달 말 전 직군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공채를 열 계획이다.

IT업계는 유연한 조직문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업계, 직장으로 꼽힌다. 그만큼 채용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민 기자 skni@

## 아워홈 하반기 인턴 영양사·조리사 공개채용

아워홈은 이달 16일까지 2018년 하반기 인턴 영양사 및 조리사 공개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턴 영양사는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영양사 면허와 조리기능사 자격증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야한다. 단,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영양사 면허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인턴 조리사도 조리 관련 학과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조리사 지원자는 조리자격증 1개 이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턴 영양사와 조리사 공통으로 위생

사 및 식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와 학점 우수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외국어 능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서류는 16일 자정까지 아워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채용 정보와 일정은 아워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